

신진연구자의 오픈액세스 출판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 체계적 문헌고찰 -

Research Trends in Open Access Publishing among Early-Career Researchers: A Systematic Review

한 혜 영 (Hye Young Han)*

목 차

- | | |
|----------|------------|
| 1. 서 론 | 4. 연구 결과 |
| 2. 선행 연구 | 5. 결론 및 제언 |
| 3. 연구 방법 | |

초 록

본 연구는 신진연구자의 오픈액세스 출판을 다룬 국외 연구의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설명 관점 및 주요 연구 결과를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PRISMA 2020에 따라 Web of Science, Scopus, LISTA 검색과 저자 기반 추가 검색을 병행하여 총 364편의 문헌을 확인하였다. 중복 제거와 선정 기준에 따른 선별, 관련 분야 연구자 1인의 적절성 검토를 거쳐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출판된 24편을 최종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질적연구가 11편(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경력 압박과 명성·평판 경제 등 구조적 관점에 기반한 탐색적 실증 연구가 수행되었다. 신진연구자는 오픈액세스 출판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실제 학술지 선택에서는 오픈액세스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인식과 출판 행동 간의 괴리는 연구성과 평가체계, 논문 출판 비용(APC) 부담, 출판 의사결정 구조 등 제도적·환경적 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연구자와 구분되는 신진연구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결과는 국내 후속 연구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review and synthesize the research objectives, methods, explanatory perspectives, and major findings of international studies on open access (OA) publishing among early-career researchers. Following the PRISMA 2020 guidelines, searches were conducted in Web of Science, Scopus, and LISTA, supplemented by author-based manual searches, yielding a total of 364 records. After removing duplicates and screening the records according to the eligibility criteria, 24 studies published between 2015 and 2025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following a relevance review by one researcher with expertise in the field. Qualitative research was the most common, accounting for 11 studies (45.8%), and the literature primarily consisted of exploratory empirical research grounded in structural perspectives such as career pressure and the prestige and reputation economy. Early-career researchers generally perceived the value of open access publishing positively, but gave open access a relatively low priority when selecting journals. This gap between perceptions and publishing behavior was associated with i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cluding research evaluation systems, article processing charge (APC) burdens, and publishing decision-making structures.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e need for analyses focusing on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early-career researchers relative to established researchers and offer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future studies in Korea.

키워드: 신진연구자, 오픈액세스 출판, 연구 동향, 출판 행동, 체계적 문헌고찰

Early-Career Researchers, Open Access Publishing, Research Trends, Publishing Behavior, Systematic Review

*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의학도서관 사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hbean1208@gmail.com / ISNI 0000 0005 2892 4149)

논문접수일자: 2026년 7월 21일 최초심사일자: 2026년 8월 2일 게재확정일자: 2026년 8월 19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0(3): 265-289, 2026. <http://dx.doi.org/10.4275/KSLIS.2026.60.3.265>

* Copyright © 2026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학술커뮤니케이션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확장함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이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오픈액세스(open access, OA)가 주요한 학술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Guédon et al., 2019). 연구성과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누릴 수 있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며, 각국의 연구기관과 연구비 지원기관은 OA 의무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Mering, 2020). 그러나 연구자들은 OA 출판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출판 결정에는 논문 출판 비용(article processing charge, APC),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 연구 평가체계 등 여러 요소가 개입되어 인식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Dallmeier-Tiessen et al., 2011; Rowley et al., 2017; Togia & Korobili, 2014).

인식과 행동 간의 괴리는 태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학계의 규범이나 제도적 환경과 외부 지원 등이 함께 관여한 결과로 볼 수 있다(Moksness & Olsen, 2017). 특히 연구자의 경력단계는 자원의 접근성과 학술공동체 내의 위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진연구자는 기성연구자에 비해 학계의 제도적 관행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Nicholas et al., 2017a; 2020a). 따라서 연구자의 출판 인식과 행동을 이해하려면 경력단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구분하지 않은 분석은 집단 간 구조적 차이를 적절하게 포착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Karadag & Ciftci, 2023). 그중에서도 신진연구자는 OA의 확산을 선도할 세대로 기대받아 왔으며, 이들의 학술출판 특성을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Nicholas et al., 2020b).

국외에서는 신진연구자가 직면하는 구조적 상황 속에서 OA 출판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Nicholas et al., 2017a; 2020b; 2024). 다만 기존의 연구들은 관련 연구의 수가 제한적인 데다,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설명 관점 및 도출된 결과가 이질적으로 나타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는 한혜영과 심원식(2025)이 보건의료분야 신진연구자 259명을 대상으로 OA 학술지 출판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신진연구자들은 OA 출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APC 부담과 학술지의 신뢰성 등을 주요 제약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정 학문 분야와 표본을 대상으로 한 단일 연구라는 점에서 국내 신진연구자의 OA 출판에 관한 연구 축적은 아직 제한적이다. 따라서 국내 연구만으로는 관련 연구의 동향과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연구가 축적된 국외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외에서 발행된 신진연구자의 OA 출판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국내 연구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연구들이 어떠한 연구 목적 및 방법, 연구의 설명 관점에 기반하여 수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신진연구자의 OA 출판 인식 및 태도와 주요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2. 선행 연구

학술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연구자가 연구성과의 출판과 확산 방식을 선택하는 과정은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연구자의 학술출판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다룬 연구가 축적되면서, 개별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 주요 영향 요인을 체계화하기 위한 문헌고찰 연구도 이루어져 왔다. 특히 OA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실제 OA 출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인식과 행동 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주요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졌다.

Togia와 Korobili(2014)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연구자의 OA 인식과 태도, 출판 경험에 초점을 둔 15편의 선행연구를 메타합성(meta-synthesis)하였다. 분석 결과, OA 학술지에 대한 인지도와 출판 경험, 출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OA 학술지에 대한 인식, 저자부담금(author charges), 학문 분야의 역할이 주요 주제로 확인되었다.

Kaliuzhna et al.(2025)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문헌 중 연구자가 OA 출판 과정에서 경험하는 장벽을 다룬 113편을 분석하였다. 주제 범위 문헌고찰을 통해 82개의 OA 출판 장벽을 실무적 장벽, 역량 부족, 인식과 정서, 정책 및 거버넌스의 네 영역으로 유형화함으로써 여러 연구에 분산되어 있던 장벽 요인을 포괄적으로 구조화하였다. 신진연구자와 직접 관련된 장벽으로는 멘토링 부재 한 항목이 제시되었다.

OA 출판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Hailu와 Wu(2021)는 학술커뮤니케이션에서 연구자의 학

술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이용을 다룬 115편의 문헌을 주제 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로 분석하였다. 저자들은 이용 동기와 활용, 영향 평가, 기능과 서비스, 학술 빅데이터 등의 주제로 분류하여 다양한 연구 주제와 접근방법으로 수행된 관련 연구의 주요 영역과 특성을 종합하였다.

도서관 이용자 인식과 경험을 종합한 연구에서도 체계적 문헌고찰이 활용되어 왔다. 박현지와 박주현(2023)은 국내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불안에 관한 23편의 연구를 PRISMA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주제를 도서관 불안 이론, 측정 도구의 개발 및 타당성, 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 집단별 도서관 불안 측정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고 연구 유형과 연구 방법을 함께 검토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영역을 확인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들 문헌고찰은 기존 선행연구를 일정한 분석 틀에 따라 분류·종합하여 해당 연구 영역의 전반적인 특성과 연구가 부족한 영역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SR)은 명확한 연구 질문과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문헌을 체계적으로 수집·평가·종합하는 연구 방법으로, 연구 과정의 엄밀성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학술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연구자의 학술정보 이용과 학술출판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종합한 문헌고찰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연구자의 경력단계를 구분하여 신진연구자의 OA 출판을 독립적인 주제로 설정하고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종합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신진연구자의 OA 출판에 관한 선행연구

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류하여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및 주요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신진연구자의 OA 출판에 관한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수집·평가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을 적용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포괄적인 문헌검색과 사전에 명시된 선정 기준에 따라 문헌을 선택하고 배제함으로써, 연구자의 편향을 줄이고 연구 결과의 재현성을 높이는 연구 방법이다(Petticrew & Roberts, 2006, 1-26; 김수영 외, 2011). 따라서 체계적 문헌고찰의 보고 지침인 PRISMA 2020을 준거로 삼아 연구 절차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Page et al., 2021).

3.1 문헌검색

연구 대상 문헌을 수집하기 위해 PRISMA 2020의 보고 원칙에 따라 문헌검색, 중복 제거, 문헌 선별, 적격성 검토 및 최종 문헌 선정 과정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문헌을 폭넓게 수집하기 위해 Web of Science(WoS), Scopus, Library,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bstracts(LISTA)를 검색 DB로 활용하였다. WoS와 Scopus는 각 학문 분야의 국제 학술지를 엄격한 등재 기준에 따라 색인하고 있어, 신뢰도 높은 학술 문헌을 검색할 수 있기에 선정하였다. LISTA는 문헌정보학 및 정보학 분야

의 대표적인 서지 DB라는 점을 고려하여 채택하였다. 세 개의 DB를 병행하여 검색한 것은 문헌의 누락 가능성과 선택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체계적 문헌고찰 수행 지침에서도 복수의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권고하고 있다(김수영 외, 2011). DB 검색에 더하여 저자 기반의 추가 검색도 실시하였다. Nicholas 등이 수행한 Harbingers 프로젝트를 연구 주제와 직접 관련된 핵심 선행연구군으로 판단하고, DB 검색에서 누락될 수 있는 관련 문헌을 추가로 수집하였다.

검색어는 연구의 핵심 개념을 구조화하기 위해 SPIDER 프레임워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SPIDER(Sample, Phenomenon of interest, Design, Evaluation, Research type)는 질적연구 및 혼합방법 연구 질문의 검색 개념을 구조화하기 위해 제안된 프레임워크이다(Cooke et al., 2012). 이 프레임워크가 본 연구의 질문 구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연구 대상(Sample)과 관심 현상(Phenomenon of interest)을 중심으로 핵심 검색 개념을 설정하였다. 관련 용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표 1>과 같이 검색어를 구성하였다. 검색 대상은 동료심사를 거친 학술지의 원저(article)와 종설(review)로 한정하고, 언어는 영어로 제한하였다. 출판 연도는 제한하지 않았으며, 최종 검색일은 2026년 2월 3일이었다.

검색 전략에 따라 총 364편의 문헌을 확인하였다. Scopus에서 128편, WoS에서 189편, LISTA에서 43편을 검색하였으며, 저자 기반 수기 검색을 통해 4편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중복 문헌은 서지관리프로그램인 EndNote 2025를 이용하여 식별하였으며, 총 100편을 배제하였다.

<표 1> SPIDER 프레임워크 기반 검색 개념 및 검색식 구성

구성 요소	검색어(Keyword)
연구 대상	"early career researcher*" OR ECR* OR "early career academic*" OR "early stage researcher*" OR "junior researcher*" OR "early career scientist*" OR "early-stage scientist*" OR "postdoctoral researcher*" OR postdoc* OR "early career investigator*" OR "junior faculty"
관심 현상	"open access publishing" OR "open access publication*" OR "open access journal*" OR "open access" OR "open-access"
최종 검색식	("open access publishing" OR "open access publication*" OR "open access journal*" OR "open access" OR "open-access") AND ("early career researcher*" OR ECR* OR "early career academic*" OR "early stage researcher*" OR "junior researcher*" OR "early career scientist*" OR "early-stage scientist*" OR "postdoctoral researcher*" OR postdoc* OR "early career investigator*" OR "junior faculty")
제한 조건	문헌유형: Article, Review / 언어: English

*는 어형을 확장하여 관련 용어를 함께 검색하는 절단 기호(truncation)임

3.2 문헌 선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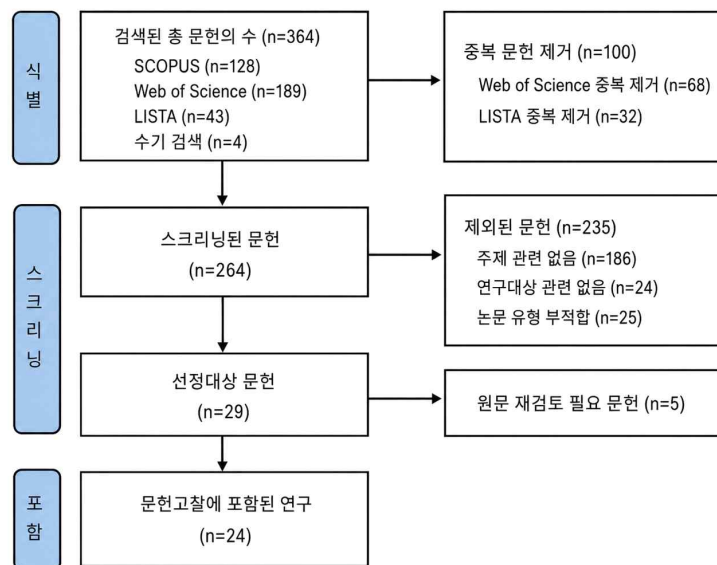
문헌의 선별은 PRISMA 2020 flow diagram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행되었다(<그림 1> 참조). 저자는 제목과 초록을 중심으로 선정 기준 부합 여부를 평가하였으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 원문을 재검토하여 포함 여부를 결정하였다. 선정 과정의 편향을 줄이기 위해 문헌정보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학술커뮤니케이션 및 오픈엑세스 출판 분야의 연구 경력을 보유한 연구자 1인이 선정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두 연구자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은 문헌은 사전에 정의한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그 결과 264편 중 포함 및 배제 기준에 따라 240편을 제외하고 최종 24편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문헌 규모는 검색의 부족이 아니라 신진연구자의 OA 출판을 연구 주제로 다룬 문헌만을 포함하는 선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이다. 실제로 오픈 연구데이터 채택 요인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는 32편(Zuiderwijk et al., 2020), 신진연구자의 정체성을 다룬 문헌고찰 연구는 24

편을 분석에 포함하였다(Mula et al., 2022). 이에 비추어 볼 때, 최종 선정 문헌 수는 관련 연구 분야의 체계적 문헌고찰과 유사한 규모이다.

개별 문헌이 제시한 조작적 정의를 수용하되,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진연구자를 다룬 연구로 판단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을 신진연구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용어(early-career researcher, junior researcher, postdoctoral researcher 등)로 명시한 연구이다. 둘째, 연구 대상이 박사과정 재학생부터 정년트랙 진입 이전 단계에 있으며, 비정년(non-tenured)·비정규 트랙에 해당하는 연구이다. 임상 및 연구 수련 단계의 연구자도 이 범위에 포함하였다. 연령 기준은 문헌에 따라 35세에서 45세까지로 상이하여, 특정 연령을 일괄적인 선정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수집된 문헌을 선별하기 위해 PRISMA의 보고 원칙에 따라 선정 기준을 사전에 정의하였다(Page et al., 2021).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문헌을 포함하기 위해 연구 주제의 적합성, 연구 대상, 문헌 유형 등을 고려하여 포함 및 배제 기준을 설정하였다(<표 2> 참조).



〈그림 1〉 PRISMA 2020 기반의 문헌 채택 흐름도

〈표 2〉 문헌 선별 기준

구분	포함 기준	배제 기준
연구 유형	실증 연구 및 종설 연구	오피니언, 논평 등 비연구 문헌
연구 대상	본 연구가 정의한 신진연구자를 주요 연구 대상 또는 독립된 분석 집단으로 다룬 연구	신진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분석되지 않은 연구
연구 주제	신진연구자의 OA 출판 인식·태도, 출판 동기, 제도적 조건을 다룬 연구	신진연구자의 OA 출판을 다루었으나 인식, 경험 및 영향 요인을 분석하지 않은 연구
문헌 유형	동료심사를 거친 학술지 원저 및 종설	원저·종설 이외의 출판 유형
언어	영어	영어 이외 언어

3.3 분석 방법

문헌에 대한 분석은 서지적 특성,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주요 연구 결과, 신진연구자의 OA 출판과의 관련 정도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서지적 특성은 출판 연도, 저자, 학술지, 연구 수행 국가, 학문 분야 및 연구 유형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은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자료수집 방식, 응답자 수, 분

석 기법, 주요 조사 항목 및 설명 관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종합하였다. 인식 및 태도는 OA의 가치·신뢰도·품질에 관한 평가적 진술과 이에 대응하는 출판 경험을, 출판 선택 요인은 학술지 선택 기준과 우선순위 및 선택에 관여하는 조건을, 제도적 지원과 제약은 평가체계·비용·정책 등 구조적 조건과 그에 대한 인지 및 활용 양상을 의미한다.

분석 문헌은 핵심 문헌과 보조 문헌으로 구분하였다. 핵심 문헌은 신진연구자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여 OA 출판에 대한 인식 및 행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정의하였으며, 보조 문헌은 신진연구자를 독립적인 분석 집단으로 다루면서 OA 출판 인식, 행동 및 제도적 환경을 이해하는 데 근거를 제공하는 연구로 구분하였다. 이 구분은 문헌의 질적 수준에 따른 위계가 아니라 신진연구자의 OA 출판에 대한 연구의 직접성에 따른 것이다.

4. 연구 결과

분석 대상 문헌의 일반적 특성은 출판 연도, 연구 수행 국가, 학문 분야, 연구 방법, 신진연구자의 정의 방식을 중심으로 개괄하였다. 문헌의 내용은 연구 목적, 연구 방법론, 설명 관점에서 검토하고, 신진연구자의 OA 출판 양상은 인식 및 태도, 출판 선택 요인, 제도적 지원과 제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핵심 문헌 4편(Nicholas et al., 2017a; 2020b; 2024; O'Hanlon et al., 2020)은 연구 설계와 결과를 상세히 분석하고, 보조 문헌 20편은 주제별 근거로 활용하였다.

4.1 분석 대상 문헌의 일반적 특성

분석 문헌은 <표 3>과 같이 핵심 문헌 4편과 보조 문헌 20편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대상 24편의 저자 구성을 살펴보면 특정 연구진의 비중이 두드러진다. Nicholas가 제1저자인 문헌이 12편(50.0%)이며, Xu et al.(2018, A7), Jamali et al.(2020, A11), Xu et al.(2020,

A13), Jamali et al.(2023, A21)에도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총 16편(66.7%)에 관여하고 있다. 신진연구자의 학술커뮤니케이션을 다년간 추적해 온 Harbingers 프로젝트가 해당 연구를 주도해 온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연구 목적과 설명 관점의 분포에서는 상당한 다양성이 확인되었다. Nicholas가 제1저자인 12편은 연구 목적별로 OA 인식·태도 탐색형 2편(A4, A15), 제도·정책 맥락 비교형 3편(A9, A14, A19), OA 부수적 검토형 6편(A5, A6, A8, A17, A20, A22), 출판 비용 및 장벽 규명형 1편(A23)으로 구분되며, 설명 관점에서 연구성과 압박 및 경력 불안정성, 명성·평판 경제, 신진연구자 변화주도설, 부실 의심 학술지 식별 및 출판 리터러시, 구조적 불평등 등 서로 다른 틀이 적용되었다. 조사 방법 역시 종단 심층면담, 국제 서베이, 혼합연구로 나뉘며, 표본 규모도 14명에서 1,600명까지 편차가 크다.

다만 이들 문헌이 Harbingers라는 동일한 연구 프로젝트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에서, 신진연구자의 정의와 조사 항목이 일정 부분 공유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Harbingers 계열 외의 문헌 8편(A1, A2, A3, A10, A12, A16, A18, A24)의 결과도 병렬적으로 검토하여 특정 연구진의 관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출판 연도는 2015년부터 2025년에 걸쳐 분포하였으며, 2020년에 6편(25.0%)으로 가장 집중되었다. 이 시기는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연구 정보의 신속한 확산과 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와 맞물린다(Homolak et al., 2020). 다음으로는 2022년에 3편(12.5%)이 발행되어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 외에는 매년 1

〈표 3〉 선정 문헌의 서지적 특성

문헌 코드	저자·연도	학술지	연구 수행 국가 범위	학문 분야	연구 유형	문헌 구분
A1	Christopher & Young(2015)	Frontiers in Veterinary Science	단일국가	보건의학	혼합	보조
A2	Tzarnas & Tzarnas(2015)	Journal of Surgical Education	단일국가	보건의학	정량	보조
A3	Tenopir et al.(2016)	Publications	다국가	다학문	정량	보조
A4	Nicholas et al.(2017a)	Learned Publishing	다국가	다학문	질적	핵심
A5	Nicholas et al.(2017b)	Learned Publishing	다국가	다학문	질적	보조
A6	Nicholas et al.(2018)	Learned Publishing	다국가	다학문	질적	보조
A7	Xu et al.(2018)	Journal of Scholarly Publishing	단일국가	다학문	질적	보조
A8	Nicholas et al.(2019a)	Information Services and Use	다국가	다학문	질적	보조
A9	Nicholas et al.(2019b)	Learned Publishing	다국가	다학문	질적	보조
A10	Dalton et al.(2020)	Portal: Libraries and the Academy	다국가	다학문	정량	보조
A11	Jamali et al.(2020)	Learned Publishing	다국가	다학문	정량	보조
A12	O'Hanlon et al.(2020)	Journal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단일국가	보건의학	혼합	핵심
A13	Xu et al.(2020)	Malaysian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단일국가	다학문	정량	보조
A14	Nicholas et al.(2020a)	Learned Publishing	다국가	다학문	질적	보조
A15	Nicholas et al.(2020b)	Profesional de la Información	다국가	다학문	혼합	핵심
A16	Toribio-Flórez et al.(2021)	Frontiers in Research Metrics and Analytics	단일국가	다학문	정량	보조
A17	Nicholas et al.(2021)	Foresight and STI Governance	다국가	다학문	혼합	보조
A18	Gownaris et al.(2022)	Data Science Journal	다국가	다학문	혼합	보조
A19	Nicholas et al.(2022a)	Learned Publishing	다국가	다학문	질적	보조
A20	Nicholas et al.(2022b)	Profesional de la Información	다국가	다학문	질적	보조
A21	Jamali et al.(2023)	PLoS One	다국가	다학문	정량	보조
A22	Nicholas et al.(2023)	Learned Publishing	다국가	다학문	질적	보조
A23	Nicholas et al.(2024)	Learned Publishing	다국가	다학문	질적	핵심
A24	Alkadi et al.(2025)	Advances in Medical Education and Practice	단일국가	보건의학	정량	보조

편 이상의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면서 최근까지 관련 연구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수행 국가는 다국가 간 비교 연구가 17편(70.8%)으로 단일 국가 연구 7편(29.2%)보다 많았다. 영국·미국·중국·프랑스·말레이시아·폴란드·스페인 등을 포괄하는 국제 비교 연구가 다수 확인되었는데,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다국가 표본을 장기간 추적한 일련의 연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단일 국가 연구는 미국이 3편, 중국이 2편, 독일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각 1편이었다. 관련 연구는 다국가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축적되었으며, 국가 맥락에 초점을 둔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연구 대상자의 학문 분야는 다학문 연구가 20편(83.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보건의학 분야만 대상으로 한 연구가 4편(16.7%)으로 나타났다. 다학문 분야의 연구에 포함된 세부 학문 분야를 살펴보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학문 분야와 사회과학 계열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가 20편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의학(14편)과 생명과학 분야(11편)는 다학문 분야의 연구에서도 적지 않

은 비중을 보였으며, 인문·예술학(11편)과 컴퓨터과학 분야(4편)의 연구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OA 출판 관련 연구가 학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범학문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보건의학 분야 신진연구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오픈엑세스에 대한 인식과 출판 경험을 단일 분야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연구 방법은 질적연구 11편(45.8%), 정량연구 8편(33.3%), 혼합연구 5편(2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방법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다. 총 24편의 문헌은 15종의 학술지에 게재되었는데, 이 중 Learned Publishing에 게재된 문헌이 9편(37.5%)으로 가장 많았다. Profesional de la Información에 2편이 실린 것 외에는 각 1편씩 발표되었다. 게재 학술지를 분야별로 구분하면 문헌정보학·학술커뮤니케이션 분야 학술지가 17편(70.8%), 보건의학과 과학기술·연구 정책 분야가 각각 3편(12.5%), 다학문 분야가 1편(4.2%)으로 나타났다. OA 출판 관련 연구는 문헌정보학·학술커뮤니케이션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연구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술지에서도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진연구자의 정의 방식은 연구마다 상이하였다. 명시적인 정의를 제시한 연구가 18편(75.0%)이었으며, 별도의 정의가 없이 연구 대상을 통해 신진연구자를 규정한 연구가 6편(25.0%)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문헌 전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진연구자의 범위는 연령 및 경력을 기준으로 한 연구가 16편(66.7%)으로 가장 많았고, 수련 과정에 있는 연구자를 신진연구자로 간주한 연구가 4편(16.7%)이었다. 직위 또는 경력 연수

를 기준으로 한 연구는 각각 2편(8.3%)이었다. 이처럼 신진연구자의 정의가 연구마다 일관되지 않은 것은 초기 경력 연구자의 범위를 연구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기 때문이다.

4.2 분석 대상 문헌의 연구 내용

문헌의 연구 내용은 연구 목적, 연구 방법론, 설명 관점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연구 목적은 주제의 주된 초점을 중심으로 유형화하고, 연구 방법론은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설명 관점은 신진연구자의 OA 출판을 어떠한 시각에서 설명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4.2.1 연구 목적

다음에서는 각 유형의 연구 목적과 특징을 살펴보고, 유형별 세부 문헌의 분류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OA 인식·태도 탐색형은 신진연구자의 OA 출판에 대한 인식과 수용 양상을 살펴본 문헌이다. Nicholas et al.(2017a)은 변화하는 학술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신진연구자의 출판 활동 및 저자 관행과 관련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이 오픈사이언스(open science, OS), 오픈엑세스, 소셜 미디어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연구하고 출판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후 Nicholas et al.(2020b)은 오픈엑세스 출판에 초점을 맞추어 신진연구자의 인식 및 태도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으며, OA 출판 경험과 인식이 성별, 국가, 학문 분야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표 4〉 연구 목적 유형별 문헌 분류

연구 목적 유형	주요 특징	문헌 수(%)	문헌 코드
OA 인식·태도 탐색형	OA 출판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수용 탐색	3(12.5)	A4, A10, A15
출판 비용 및 장벽 규명형	APC 및 제도적 장벽 요인 규명	3(12.5)	A2, A12, A23
제도·정책 맥락 비교형	국가, 기관, 연구 환경에 따른 인식 및 행동 비교	6(25.0)	A3, A9, A11, A13, A14, A19
OA 부수적 검토형	약탈적 학술지, 팬데믹, OS 등 인접 주제에서 OA를 부수적으로 검토	12(50.0)	A1, A5, A6, A7, A8, A16, A17, A18, A20, A21, A22, A24
합계		24(100.0)	

출판 비용 및 장벽 규명형은 APC를 비롯한 비용 요인과 다른 제도적 요인이 OA 출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Nicholas et al.(2024)은 APC가 신진연구자에게 여전히 장벽으로 작용하는지와 APC 지원 제도 및 비용 부담 방식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조사하였다. O'Hanlon et al.(2020)은 임상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OA 출판과 공공접근에 대한 인식과 NIH 공공접근 정책(NIH Public Access Policy)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출판 행동과 OA 출판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제도·정책 맥락 비교형은 국가 및 기관별 정책 환경이 신진연구자의 OA 출판 인식 및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들이다. 즉 국가 간 비교, 정책의 변화, 연구 평가제도, 직위 및 학문 분야별 차이를 중심으로 신진연구자의 학술커뮤니케이션 인식과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오픈엑세스 부수적 검토형은 연구의 목적이 부실 의심 학술지에 대한 인식, 팬데믹의 영향, 학술커뮤니케이션의 변화 등 오픈엑세스 이외의 주제를 탐색하는 데 있으며, OA 출판은 연구 주제 내에서 부수적으로 논의된 연구들이다.

이 유형은 OA 출판 자체보다 학술커뮤니케이션의 변화나 이슈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픈엑세스를 관련 요소로 함께 검토하였다.

4.2.2 연구 방법론

분석 대상 문헌의 연구 방법과 조사 내용은 〈표 5〉와 같다. 문헌의 연구 방법은 질적연구 11편(45.8%), 정량연구 8편(33.3%), 혼합연구 5편(20.8%)이었다.

질적연구는 11편 모두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동일한 국제 중단 연구 프로젝트에서 특정 연차 또는 누적된 면담 자료를 활용하였다. 동일 연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한 연구에서는 신진연구자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하였다.

정량연구는 8편으로 대부분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문항은 연구자의 OA 출판 인식, 학술지 선택 요인, APC 부담, 부실 의심 학술지 인식 등과 같은 OA 출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을 다룬 경우가 다수였으나, 연구 주제상 오픈엑세스가 간접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들 8편은 보조 문헌으로서, 신진연구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면서 오픈엑세스를 부수적인 주제로

〈표 5〉 분석 대상 문헌의 연구 방법론

문헌 코드	연구 방법	자료수집	응답자 수(명)
A1	혼합	설문(개방형 병행)	145
A2	정량	설문	94
A3	정량	설문	2,021
A4	질적	심층면담	116
A5	질적	심층면담(종단)	116
A6	질적	심층면담(종단)	100 이상*
A7	질적	심층면담(종단)	14
A8	질적	심층면담(종단)	120
A9	질적	심층면담(종단)	103
A10	정량	설문	822
A11	정량	설문	1,051
A12	혼합	출판데이터 분석 · 심층면담	218/15
A13	정량	설문	263
A14	질적	심층면담(종단)	116
A15	혼합	설문(개방형 병행)	1,600
A16	정량	설문	568
A17	혼합	설문 · 심층면담(종단)	116
A18	혼합	설문 · 문헌분석 · 집단토론	32
A19	질적	문헌고찰 · 심층면담	177
A20	질적	심층면담(종단)	177
A21	정량	설문	800
A22	질적	문헌고찰 · 심층면담 · 설문	177
A23	질적	심층면담	62
A24	정량	설문	155

*A6은 원문에 정확한 응답자 수가 제시되지 않아 원문표현(more than a hundred)에 따라 표기함

다룬 연구와 오픈엑세스를 주된 연구 주제로 설정하고 신진연구자를 전체 표본 내 비교집단으로 분석한 연구로 구분되었다. 각 분석의 목적에 따라 기술통계(2편), 집단 간 비교분석(3편), 군집분석(1편), 회귀분석(2편) 등의 기법이 적용되었다.

혼합연구 5편은 구조화된 설문조사와 개방형 질문을 병행하거나 심층면담을 추가로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O'Hanlon et al.(2020)은 임상 및 연구 펠로우의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출판된 논문 1,489편을 분석한 후, 그 결과

를 토대로 15명에게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실시하는 순차적 설계를 적용하였다. Nicholas et al.(2020b)은 8개국 1,600명을 대상으로 한 국제 설문조사에서 정량자료와 정성자료를 함께 수집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을 통해 폐쇄형 응답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기관 및 국가 차원의 문제의식까지 수집하였다.

24편 전반에서 OA 출판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공통적으로 조사되었고, 학술지 선택 기준과 APC 부담, 기관 및 국가 차원의 정책 인지도가 다수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출

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A6), 오픈데이터 및 사전등록 경험(A16, A18), 부실 의심 학술지 식별 도구의 인지 여부(A1, A17, A24), 팬데믹의 영향(A19, A20, A21, A22)은 일부 문헌에서만 다루어졌다.

4.2.3 연구의 설명 관점

분석 대상 문헌이 신진연구자의 OA 출판을 어떠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각 문헌의 연구 질문과 논의에서 OA 출판의 선택과 행동을 설명하는 데 가장 비중 있게 다룬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단일 이론에 근거하여 수행된 연구는 없었으며, 대부분 탐색적 성격의 실증 연구로서 각기 다른 설명 요인을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분류 결과는 <표 6>과 같다.

가장 두드러진 관점은 신진연구자의 OA 출판 인식과 행동을 연구성과 압박 및 경력 불안정성에 기반하여 이해하는 것이었다(7편, 29.2%). 다음으로 명성·평판 경제 관점의 연구가 6편

(25.0%)으로 나타났다. 두 유형은 OA 학술출판을 개인의 가치관이나 선택의 문제보다 연구 평가체계, 경력 압박 및 학술지 평판 구조 등 학술연구 환경의 요인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이어서 신진연구자 변화주도설과 부실 의심 학술지 식별 및 출판 리터러시 관점이 각각 3편(12.5%), OA 출판 태도와 행동 간의 괴리와 구조적 불평등이 각각 2편(8.3%), OS 연구 주기 설명 관점의 연구가 1편(4.2%)으로 확인되었다.

핵심 문헌 4편이 해당하는 두 유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성과의 압박 및 경력 불안정성 관점에서 Nicholas et al.(2017a)은 신진연구자가 OA 출판보다 경력 형성과 평가 체계에 부합하는 출판 전략을 선호한다고 보았다. Nicholas et al.(2020b)은 신진연구자의 경력단계와 연구 평가체계가 OA 출판 선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 요인이라고 하였다.

구조적 불평등 관점에서 O'Hanlon et al.(2020)은 APC 부담을 신진연구자의 OA 출판을 제약하는 주요 장벽으로 분석하였다. Nicholas et

<표 6> 설명 관점 유형별 문헌 분류

유형	주요 특징	문헌 수(%)	문헌 코드
연구성과 압박 및 경력 불안정성	경력 압박과 평가구조를 OA 선택 요인으로 해석	7(29.2)	A2, A4, A7, A13, A15, A20, A21
명성·평판 경제	IF·인용 중심 평판 구축 구조가 OA를 후순위화	6(25.0)	A3, A5, A6, A8, A14, A19
신진연구자 변화주도설	세대적 가치관과 변화주도 가능성 검증	3(12.5)	A9, A11, A22
부실 의심 학술지 식별 및 출판 리터러시	OA와 부실 의심 학술지 혼동 출판 리터러시 문제	3(12.5)	A1, A17, A24
OA 출판 태도와 행동 간 괴리	OA 태도·행동 괴리를 제도적 요인으로 설명	2(8.3)	A10, A16
구조적 불평등	자원 격차에 따른 OA 출판 기회와 부담의 불균등	2(8.3)	A12, A23
OS 연구 주기	OS 연구 주기 내 출판 장벽으로 OA 출판을 분석	1(4.2)	A18
합계		24(100.0)	

al.(2024)은 재정적·제도적 자원을 보유한 집단이 OA 출판 기회를 확보하기 용이하며, 이로 인해 연구성과의 가시성과 학술적 명성이 축적되는 누적적 효과(Matthew effect)가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 외 유형에 해당하는 문헌은 〈표 6〉의 문헌 코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명성·평판 경제 관점의 연구들은 영향력 지수와 인용 중심의 평판 축적 구조가 학술지 선택을 좌우하면서 OA 여부가 후순위로 밀리는 양상에 주목하였다(A3, A5, A6, A8, A14, A19). 신진연구자 변화주도설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학술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가 실제로 OA 확산을 주도하는지를 검증하였다(A9, A11, A22). 부실 의심 학술지 식별 및 출판 리터러시 관점의 연구들은 신진연구자가 OA 학술지와 부실 의심 학술지를 구분하는 데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두었다(A1, A17, A24). OA 출판 태도와 행동 간 괴리 관점에서는 OA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실제 출판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을 제도

적 요인으로 설명하였으며(A10, A16), OS 연구 주기 관점의 연구는 OA 출판을 연구 수행의 전 주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장벽 중 하나로 위치시켜 분석하였다(A18).

이러한 설명 관점의 분포는 다음 절의 분석 결과와 대응된다. 학술지 선택에서 OA 여부가 후순위에 놓이는 양상은 연구성과 압박과 명성·평판 경제 관점의 문헌 13편(54.2%)에서, 인식과 실제 행동의 불일치는 태도·행동 괴리와 변화주도설 관점의 문헌 5편(20.8%)에서, APC 부담과 기관·국가 차원의 여건은 구조적 불평등을 비롯한 문헌 6편(25.0%)에서 확인되었다.

4.3 신진연구자의 OA 출판 양상

신진연구자의 OA 출판 관련 내용은 인식 및 태도, 출판 선택 요인, 제도적 지원과 제약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신진연구자 OA 출판 양상 분석 결과

분석 영역	주요 결과	문헌 코드
OA 출판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OA의 사회적·윤리적 가치와 가시성 확대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OA 모델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실 의심 학술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남	A1, A4, A5, A8, A12, A13, A15, A17, A18, A23
	• 학문 분야와 국가의 정책·연구 환경에 따라 인식과 출판 경험에 차이가 확인됨	A7, A10, A11, A12, A13, A15, A16, A20, A21
OA 출판 선택 요인	• 실제 학술지 선택에서는 OA 여부보다 IF, 학술지 명성, 독자 적합성, 동료심사, 출판 속도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됨	A4, A5, A6, A7, A11, A12, A14, A19
	• 연구비 지원, 기관 지원, 전환계약, 제1저자 여부와 연구그룹 내 의사결정 구조가 OA 선택에 영향을 미침	A4, A12, A13, A23
OA 출판의 제도적 지원과 제약	• 연구성과 평가체계와 IF 중심의 명성 구조, APC 부담이 주요 제약으로 작용함	A2, A4, A7, A8, A12, A13, A14, A19
	• 반면 OA 의무화 정책, 기관 지원 및 전환계약은 출판을 촉진할 수 있으나, 정책과 지원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정보 비대칭이 실질적 활용을 제한함	A4, A11, A12, A15, A18, A20, A23, A24

4.3.1 OA 출판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신진연구자의 OA 출판에 대한 인식은 대상 문헌 전반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OA 출판이 학술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기여하는 가치를 공통적으로 인정하였다. Nicholas et al.(2017a)의 연구에서 신진연구자의 3분의 2 이상은 OA 출판이 과학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보았으며, OA 출판은 오픈 사이언스(OS)의 구성 요소로서 윤리적 가치와 학술정보의 공공성 및 가시성을 높이는 것으로 인식되었다(Nicholas et al., 2019a). Nicholas et al.(2020b)은 신진연구자의 70%가 OA 출판을 경험하였으며, 출판의 이유로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OA 출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신진연구자의 OA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양상은 OA 학술지와 부실 의심 학술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었다(Christopher & Young, 2015; Nicholas et al., 2020b; O'Hanlon et al., 2020; Xu et al., 2020). 이때 경험이 많은 멘토 및 공동저자와의 협업은 부실 의심 학술지를 회피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icholas et al., 2021). 신진연구자는 OA 출판을 APC를 지불하는 골드 OA와 동일시하는 등 출판 모델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었으며, OA 자체를 저자 부담 방식으로 인식하고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다(Gownaris et al., 2022; Nicholas et al., 2017a; 2017b; 2019a; 2024).

OA 출판에 대한 인식은 학문 분야와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이 차이는 학문 분야별 연구 문화와 연구 환경, 국가 정책 및 제도적 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었다(Nicholas et

al., 2020b). O'Hanlon et al.(2020) 연구에서 보건의학 분야의 신진연구자는 OA 출판으로 연구 확산과 피인용 가능성 증가, 연구 협력 확대와 같은 실질적 이점을 기대하는 한편, 지식을 폭넓게 공유하는 평등주의적 가치에도 공감하였다. 반면 이공계와 인문사회 계열 간의 인식 차이에 대해서는 문헌별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 일관된 경향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화학·물리·기술 분야보다 인문사회 계열에서 오픈 액세스 출판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난 연구가 있는 반면(Toribio-Flórez et al., 2021), 이공계 분야에서 인문사회 계열보다 오픈 액세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Dalton et al., 2020). 두 연구 모두 학문 분야가 오픈 액세스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었으나, 그 방향은 연구 대상이나 연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문 분야별로 OA 출판 경험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Nicholas et al.(2020b)의 분석에 따르면 보건의학 분야 신진연구자의 OA 출판 경험 비율은 85.1%로 가장 높았고, 사회과학 분야는 62.5%로 가장 낮았다. 세부 학문 분야에서도 화학 계열은 OA 출판을 우선한 반면, 물리 계열은 이를 후순위로 두는 편차가 확인되었다(Jamali et al., 2023). 다만 출판 경험의 차이가 인식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았다. 중국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Xu et al.(2018)의 조사에서는 인문사회 계열의 OA 출판 경험이 이공계보다 적었으나, OA에 대한 태도와 인지 수준은 두 계열이 유사하였다.

국가별로도 인식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영국의 신진연구자는 국가 연구평가 정책의 영향으

로 오픈액세스를 비롯한 오픈사이언스 전반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프랑스는 관련 정책이 뒤늦게 도입되어 혼선을 빚으면서 OA 출판이 개인의 선택에 머무는 경향이 나타났다(Jamali et al., 2020). 스페인의 신진연구자는 OA 출판을 통해 인용을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아, 초기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는 출판 전략으로 인식하였다(Jamali et al., 2020; Nicholas et al., 2022b). 이에 비해 중국에서는 OA 학술지의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주요 우려로 나타났다(Xu et al., 2020).

신진연구자의 OA 출판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출판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Nicholas et al.(2017a)은 신진연구자가 경력 안정성 확보를 위해 IF가 높은 학술지를 우선하여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OA 출판을 후순위로 선택한다고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태도와 행동 간의 괴리는 OA 출판의 가시성 및 피인용 증가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APC 부담 등 현실적 제약과 OA 학술지의 평판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여러 보조 문헌에서도 제시되었다(Gownaris et al., 2022; Nicholas et al., 2017a; 2017b; 2019a; 2024).

4.3.2 OA 출판 선택 요인

문헌 분석에서 신진연구자가 OA 출판을 선택할 때 OA 여부는 핵심적인 고려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Nicholas et al.(2017a)에서 신진연구자는 학술지 선택에서 색인 등재 여부와 IF를 연구 분야 적합성보다 우선하였으며, OA 여부나 비디오 논문과 같은 출판 포맷의 혁신성은 가장 낮은 순위로 고려하였다. 이후의 연구에서도, 학술지의 명성, 독자 적합성, 동

료심사, 출판 속도 등은 중요하게 평가되지만, OA 여부는 여전히 최하위로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Nicholas et al., 2022a). 이러한 경향은 국가, 연령, 직위 및 학문 분야에 관계없이 대체로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OA 출판이 후순위인 배경에는 연구성과 평가 시스템의 영향이 있었다. O'Hanlon et al.(2020)은 연구 분야의 주 독자층과 연구 주제 적합성이 가장 중요한 학술지의 선택 기준이라는 점을 제시하면서도, 일부 신진연구자는 IF 지수 3.0 미만인 학술지는 출판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신진연구자는 영향력 지수가 높은 학술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명성이 높은 학술지에 게재하여 연구성과로 인정받으려는 경향이 여러 보조 문헌에서도 확인되었다(Jamali et al., 2020; Nicholas et al., 2017b; 2018; 2020a; Xu et al., 2018).

그러나 OA 출판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에서는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Hanlon et al.(2020)은 신진연구자가 제1저자인 경우 OA 학술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연구 수행 과정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OA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Nicholas et al.(2024)은 연구비 지원, 소속 기관의 지원 및 전환계약(transformative agreement) 체결 여부에 따라 OA 출판 선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속한 논문 게재를 위한 전략적 선택지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보상체계와 연계될 때 OA 출판 및 오픈데이터 실천 의향이 높아졌으며, OA 선택이 개인적 선호뿐 아니라 제도적·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Xu et al., 2020).

신진연구자의 학술지 선택은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 핵심 문헌 검토 결과, 공동저자 논문의 경우 투고 학술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멘토와 지도교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OA 출판 여부 역시 이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O'Hanlon et al., 2020). 신진연구자의 75%는 학술지 선택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으나, 출판의 결정은 연구그룹 내의 협의와 지도교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다(Nicholas et al., 2017a). 이와 같은 결과는 신진연구자의 OA 출판 선택이 개인의 인식이나 선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 환경과 의사결정 구조의 영향을 함께 받는 점을 보여준다.

4.3.3 OA 출판의 제도적 지원과 제약

신진연구자의 OA 출판을 제약하는 근본적인 제도적 요인은 연구성과 평가체제로 나타났다. Nicholas et al.(2017a)은 신진연구자의 학술출판 전략이 개인적인 신념과 판단의 산물이 라기보다, 연구업적에 대한 압박과 연구그룹의 위계 구조, 불안정한 경력 환경 속에서 전략적으로 조정된 결과라고 보고하였다. 보조 문헌에서는 IF와 인용색인을 중심으로 공고해진 학술지 명성 시스템이 OA를 포함한 개방적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Nicholas et al., 2020a). 연구자의 경력 발전과 안정성은 연구성과 평가체계의 영향을 받으며, OA 출판 실적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 평가제도는 OA 출판의 걸림돌로 지적되었다(Nicholas et al., 2019a).

연구성과 평가체계에 따른 출판 행동의 제약

은 특정 국가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와 폴란드에서는 WoS 또는 Scopus 색인 학술지 게재 실적이 채용, 승진 및 종신교수 임용(tenure)의 요건으로 제도화되어 있다(Nicholas et al., 2022a). Nicholas et al.(2017a)은 폴란드가 정부 지정 학술지 목록(ministerial journal list)을 운영하여 학술지 선택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제한한 점을 지적하였다. 중국에서도 SCI급 학술지를 우선하는 연구 문화, IF 중심의 평가구조와 보상체계, 연구성과 평가에 활용되는 대학별 학술지 승인 목록 등이 출판 행동을 규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Xu et al., 2018, 2020). 특히 중국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에서는 OA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더라도 현행 연구성과 평가체계가 유지되는 한 출판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되었다(Xu et al., 2018).

국가의 OA 정책은 신진연구자의 출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적 조건으로 확인되었다. Nicholas et al.(2024)은 중국의 OA 규제 강화, 프랑스의 그린 또는 다이아몬드 OA 장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전환계약 활성화 등 국가별 정책 환경의 차이를 신진연구자의 OA 출판 양상을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국가별 차이는 COVID-19 팬데믹으로 학술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유지되었다. 스페인에서는 전환계약을 활용한 OA 출판이 신진연구자의 일반적인 출판 방식으로 정착한 반면, 중국에서는 OA 학술지의 상업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정부 규제 강화로 이어져 OA 출판이 확산되지 않았다(Nicholas et al., 2022b). 프랑스에서는 APC 기반의 OA 모델이 연구자간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Nicholas et al., 2024), 국가의 OA 정책 혼선으로 OA 실천이 개인적 차원에 머물렀다(Jamali et al., 2020). 국가 간 편차는 문화적 특성보다 정책과 평가체계 차이로 더 잘 설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Jamali et al., 2020).

이 가운데 의무화 정책의 효과는 O'Hanlon et al.(2020)의 연구에서 더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신진연구자의 출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OA 출판의 74.9%는 미국 NIH의 공공접근 의무 준수를 통해 이루어진 반면, 의무화와 무관한 자발적 OA는 전체 논문의 7.1%에 불과하였다. 이는 의무화 정책이 OA 출판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영국에서는 국가 연구평가 제도(research excellence framework)에 기반한 OA 의무화 정책이 신진연구자의 오픈사이언스 실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었다(Jamali et al., 2020). 다만 Nicholas et al.(2017a)은 국가별 비교를 통해 신진연구자의 OA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영국에서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Nicholas et al.(2020b)은 의무 준수에 따라 이루어진 OA 출판조차 자발적인 선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이는 OA 의무화 정책이 신진연구자의 명시적 인식과는 별개로 출판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헌 전반에서 APC는 신진연구자의 OA 출판을 가로막는 주요 구조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O'Hanlon et al.(2020)은 연구에 참여한 임상 및 연구 펠로우의 86%가 APC를 OA 출판의 가장 큰 장벽으로 꼽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수련 급여만으로는 APC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확인하였다. 저자들은 고액의 APC가

연구비가 넉넉하지 않은 신진연구자에게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며, APC 지원 정책이 이들의 OA 출판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 외과 전공의 수련 교육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62%가 OA 출판 비용을 기관이 지원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기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연구자 스스로 부담하거나 구독 기반 학술지로 투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Tzarnas & Tzarnas, 2015). APC 채원의 배분 과정에서 신진연구자는 가장 낮은 순위에 놓이는 등 지원구조의 불균형도 나타났다(Nicholas et al., 2020a). Nicholas et al.(2020b)은 신진연구자가 APC를 직접 부담하기보다 책임연구자가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OA 출판 의사결정에서도 공동저자와 책임연구자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인 선택이 어려운 점을 보고하였다. Nicholas et al.(2024)은 국제 종단 연구에서 신진연구자의 3분의 2가 OA 출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나, 연구비 지원이나 기관의 전환계약 등 제도적 장치의 가용성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부 응답임을 밝혔다. 또한 신진연구자가 직위는 낮지만 출판 경험은 풍부한 연구자이며, 의사결정의 주된 권한을 늘 갖지는 못하더라도 관련 논의에는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지원이 존재하더라도 OA 출판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배경에는 신진연구자의 OA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있었다. Nicholas et al.(2024)은 신진연구자가 골드, 그린, 다이아몬드 등 다양한 OA 모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OA 출판을 저자가 APC를 부담하는 방

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이어졌으며, 이와 같은 인식은 다른 분석 문헌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Alkadi et al., 2025; Gownaris et al., 2022). O'Hanlon et al.(2020)은 연구가 수행된 기관에서 SpringerOpen 등 출판사와의 기관 멤버십을 통해 APC를 지원하였음에도, 소속 연구자의 OA 출판 비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신진연구자를 둘러싼 제도적·환경적 여건은 연구성과 평가체계, OA 출판 정책, APC 지원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 결국 신진연구자의 OA 출판 선택과 실행에는 개인의 인식과 판단뿐 아니라 제도적·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진연구자의 OA 출판을 다룬 24 편의 문헌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OA 출판 인식, 출판 선택 요인, 제도적 지원과 제약의 양상을 확인하였다. 신진연구자는 OA 출판의 가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었지만, 학술지를 선택하는 데는 OA가 주된 요인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선택의 경향은 연구자가 속한 국가나 학문 분야에 관계없이 대체로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연구자의 인식과 행동 간의 괴리는 개인의 선호보다 연구성과 평가체계, APC 부담, 출판 의사결정 구조 등 신진연구자를 둘러싼 제도적·환경적 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진연구자에 대한 정의도 연구마다 차이가 있었으며, 그 범위는 개별 연구의 조작적 정의

에 따라 달랐다. 이는 신진연구자에 대해 학술적으로 합의된 단일한 정의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Bazeley, 2003; Meuleners et al., 2023; Monereo & Liesa, 2022). 이를 고려하여 특정 연령이나 경력 연수를 일괄 적용하는 대신, 박사과정부터 정년트랙 진입 이전의 경력단계라는 공통 조건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을 설정하였다.

신진연구자의 OA 출판 인식 및 태도에는 경력단계와 구조적 조건에서 비롯된 공통적인 특성이 나타났다. 신진연구자는 독자적인 연구 재원이 부족하여 APC 부담을 크게 인식하였으며, 기관 내 제한된 재원의 배분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경력 초기에 연구성과를 빠르게 축적해야 하는 압박을 받으면서도, 학술지 선택과 출판 방식의 결정은 연구 그룹의 위계와 지도교수의 판단에 크게 좌우되었다. 경력의 불안정성과 제한된 의사결정 권한은 학술출판 전략에서 보수적인 경향으로 이어져, 학술지의 권위와 명성이 OA 여부보다 우선하는 선택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연구성과 평가체계의 영향은 모든 연구자가 경험하는 문제이지만, 신진연구자는 연구 재원, 의사결정 권한, 경력 안정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앞서 확인된 제약을 더욱 크게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신진연구자의 OA 출판은 기성연구자와 구분되는 경력단계별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신진연구자의 OA 출판 양상은 개인적 여건뿐 아니라 구조적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문헌에서 OA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OA 출판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었지만, 정책적 의무가 없으면 연

구자의 자발적인 OA 선택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연구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신진연구자는 OA를 저자 부담 모델과 동일시하는 등 OA 출판 모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관련 지식의 부족은 지원 제도의 활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진연구자는 연구 재원, 경력 안정성, 출판 의사결정 권한에서 경력단계별 차이를 보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 차이가 OA 출판 인식과 행동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성과 평가체계가 OA 출판을 후순위로 두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연구업적 평가 지표가 OA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실제 출판 선택 간의 괴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APC 지원과 전환계약 등 OA 출판 지원 환경이 실제 출판 선택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신진연구자의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와 활용 양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 후속 연구에서는 이론적·개념적 기반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분석 대상 문헌 대부분이 단일 이론에 근거하지 않은 탐색적 연구였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OA 출판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진연구자에 대한 정의의 차이가 연구 대상의 범위와 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내 학술지원 제도의 맥락을 반영한 신진연구자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정립도 요구된다.

연구의 한계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분석 대상 문헌이 24편으로 제한적이며, 이 가운데 12편은 오픈액세스를 부수적으로 다룬 연구였다. 신진연구자의 OA 출판을 직접 분석한 문헌이 적어 주제별 분석의 깊이에 편차가 있었으며, 일부 주요 결과의 해석이 4편의 핵심 문헌에 상대적으로 의존하였다.

둘째, 연구 방법과 측정 지표가 이질적이어서 통계적 종합은 수행할 수 없었다. 이에 PRISMA 2020의 보고 지침을 준거로 삼되, 결과의 종합은 서술적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정량적 효과의 통합보다 연구 동향과 주요 쟁점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셋째, 분석 대상 문헌 24편 중 16편이 동일한 국제 중단 연구 프로젝트 및 그 후속 연구에서 산출된 것으로, 연구팀과 표본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특정 연구 집단의 관점이 결과에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되었을 수 있다.

넷째, 문헌 선별은 저자가 수행하고 관련 분야 연구자 1인이 그 결과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두 명 이상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선별한 뒤 결과를 대조하는 절차와 비교할 때, 선별 판단의 일관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신진연구자의 OA 출판에 관한 국외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신진연구자의 OA 출판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신진연구자는 향후 학술생태계를 구성하는 연구자 집단으로, 이들의 출판 선택은 오픈액세스를 둘러싼 학술출판 환경과 학술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이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수영, 박지은, 서현주, 서혜선, 손희정, 신채민, 이윤재, 장보형, 허대석 (2011). NECA 체계적 문헌고찰 매뉴얼. 서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박현지, 박주현 (2023). 국내 도서관 불안 연구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3), 271-293. <https://doi.org/10.16981/kliss.54.3.202309.271>
- 한혜영, 심원식 (2025). 국내 보건의료분야 신진연구자의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 인식 및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9(4), 55-74. <https://doi.org/10.4275/KSLIS.2025.59.4.055>
- Alkadi, L., Aldghim, A., Farook, F. F., Alfadley, A., & Jamleh, A. (2025). Predatory publishing awareness among dental interns in Riyadh, Saudi Arabia: a cross-sectional study. *Advances in Medical Education and Practice*, 16, 2103-2114. <https://doi.org/10.2147/AMEP.S548141>
- Bazeley, P. (2003). Defining 'early career' in research. *Higher Education*, 45(3), 257-279. <https://doi.org/10.1023/a:1022698529612>
- Christopher, M. M. & Young, K. M. (2015). Awareness of "predatory" open-access journals among prospective veterinary and medical authors attending scientific writing workshops. *Frontiers in Veterinary Science*, 2, article 22. <https://doi.org/10.3389/fvets.2015.00022>
- Cooke, A., Smith, D., & Booth, A. (2012). Beyond PICO: the SPIDER tool for qualitative evidence synthe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22(10), 1435-1443. <https://doi.org/10.1177/1049732312452938>
- Dallmeier-Tiessen, S., Darby, R., Goerner, B., Hyppoelae, J., Igo-Kemenes, P., Kahn, D., Lambert, S., Lengenfelder, A., Leonard, C., & Mele, S. (2011). Highlights from the SOAP project survey. What scientists think about open access publishing. *arXiv Preprint arXiv:1101.5260*. <https://doi.org/10.48550/arXiv.1101.5260>
- Dalton, E. D., Tenopir, C., & Björk, B.-C. (2020). Attitudes of North American academics toward open access scholarly journals. *Portal: Libraries and the Academy*, 20(1), 73-100. <https://doi.org/10.1353/pla.2020.0005>
- Gownaris, N. J., Vermeir, K., Bittner, M. I., Gunawardena, L., Kaur-Ghumaan, S., Lepenies, R., Ntsefong, G. N., & Zakari, I. S. (2022). Barriers to full participation in the open science life cycle among early career researchers. *Data Science Journal*, 21(2), 1-15. <https://doi.org/10.5334/dsj-2022-002>
- Guédon, J. C., Jubb, M., Kramer, B., Laakso, M., Schmidt, B., & Šimukovič, E. (2019). Future of scholarly publishing and scholarly communication: report of the expert group to the

- European Commission,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Hailu, M. & Wu, J. (2021). The use of academic social networking sites in scholarly communication: scoping review. *Data and Information Management*, 5(2), 277-298.
<https://doi.org/10.2478/dim-2020-0050>
- Homolak, J., Kodvanj, I., & Virag, D. (2020). Preliminary analysis of COVID-19 academic information patterns: a call for open science in the times of closed borders. *Scientometrics*, 124(3), 2687-2701. <https://doi.org/10.1007/s11192-020-03587-2>
- Jamali, H. R., Nicholas, D., Herman, E., Boukacem-Zeghmouri, C., Abrizah, A., Rodríguez-Bravo, B., Xu, J., Świgoń, M., Polezhaeva, T., & Watkinson, A. (2020). National comparisons of early career researchers' scholarly communication attitudes and behaviours. *Learned Publishing*, 33(4), 370-384. <https://doi.org/10.1002/leap.1313>
- Jamali, H. R., Nicholas, D., Sims, D., Watkinson, A., Herman, E., Boukacem-Zeghmouri, C., Rodríguez-Bravo, B., Świgoń, M., Abrizah, A., Xu, J., Tenopir, C., & Allard, S. (2023). The pandemic and changes in early career researchers' career prospects, research and publishing practices. *PLoS One*, 18(2), e0281058.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81058>
- Kaliuzhna, N., Aydin, Z., Müller, P., & Hauschke, C. (2025). Hurdles to open access publishing faced by authors: a scoping literature review from 2004 to 2023. *Royal Society Open Science*, 12(8), 250257. <https://doi.org/10.1098/rsos.250257>
- Karadag, E. & Ciftci, S. K. (2023). Why research productivity of some scientists is higher? effects of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capital on research productivity. *Heliyon*, 9(8), e18762.
<https://doi.org/10.1016/j.heliyon.2023.e18762>
- Mering, M. (2020). Open access mandates and policies: the basics. *Serials Review*, 46(2), 157-159.
<https://doi.org/10.1080/00987913.2020.1760707>
- Meuleners, J. S., Neuhaus, B. J., & Eberle, J. (2023). The role of scholarly identity and basic needs support during doctoral studies on career aspirations of early career scientists. *Studies in Higher Education*, 48(12), 1952-1965. <https://doi.org/10.1080/03075079.2023.2217726>
- Moksness, L. & Olsen, S. O. (2017). Understanding researchers' intention to publish in open access journals. *Journal of Documentation*, 73(6), 1149-1166.
<https://doi.org/10.1108/JD-02-2017-0019>
- Monereo, C. & Liesa, E. (2022). Early career researchers' identity positions based on research experiences. *Higher Education Research & Development*, 41(1), 193-210.
<https://doi.org/10.1080/07294360.2020.1835834>

- Mula, J., Rodríguez, C. L., Domingo Segovia, J., & Cruz-González, C. (2022). Early career researchers' identity: a qualitative review. *Higher Education Quarterly*, 76(4), 786-799.
<https://doi.org/10.1111/hequ.12348>
- Nicholas, D., Boukacem-Zeghmouri, C., Abrizah, A., Rodríguez-Bravo, B., Xu, J., Świgoń, M., Watkinson, A., & Herman, E. (2019a). Open science from the standpoint of the new wave of researchers: views from the scholarly frontline. *Information Services and Use*, 39(4), 369-374. <https://doi.org/10.3233/ISU-190069>
- Nicholas, D., Herman, E., Boukacem-Zeghmouri, C., Rodríguez-Bravo, B., Watkinson, A., Abrizah, A., Świgoń, M., Xu, J., Sims, D., Serbina, G., Clark, D., Jamali, H. R., Tenopir, C., & Allard, S. (2023). Transforming scholarly communications: the part played by the pandemic and the contribution of early career researchers. *Learned Publishing*, 36(4), 492-505.
<https://doi.org/10.1002/leap.1576>
- Nicholas, D., Herman, E., Boukacem-Zeghmouri, C., Watkinson, A., Sims, D., Rodríguez-Bravo, B., Świgoń, M., Abrizah, A., Xu, J., & Serbina, G. (2022b). Early career researchers in the pandemic-fashioned 'new scholarly normality': voices from the research frontline. *Profesional de la Información*, 31(5), 1-16. <https://doi.org/10.3145/epi.2022.sep.10>
- Nicholas, D., Herman, E., Clark, D., Boukacem-Zeghmouri, C., Rodríguez-Bravo, B., Abrizah, A., Watkinson, A., Xu, J., Sims, D., & Serbina, G. (2022a). Choosing the 'right' journal for publication: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pandemic-era early career researchers. *Learned Publishing*, 35(4), 605-616. <https://doi.org/10.1002/leap.1488>
- Nicholas, D., Herman, E., Watkinson, A., Xu, J., Abrizah, A., Rodríguez-Bravo, B., Boukacem-Zeghmouri, C., Polezhaeva, T., & Świgoń, M. (2021). Early career researchers between predatory publishing and academic excellence: the views and behaviours of the millennials. *Foresight and STI Governance*, 15(1), 56-65.
<https://doi.org/10.17323/2500-2597.2021.1.56.65>
- Nicholas, D., Jamali, H. R., Herman, E., Xu, J., Boukacem-Zeghmouri, C., Watkinson, A., Rodríguez-Bravo, B., Abrizah, A., Świgoń, M., & Polezhaeva, T. (2020b). How is open access publishing going down with early career researchers? an international, multi-disciplinary study. *Profesional de la Información*, 29(6), e290614. <https://doi.org/10.3145/epi.2020.nov.14>
- Nicholas, D., Revez, J., Abrizah, A., Rodríguez-Bravo, B., Boukacem-Zeghmouri, C., Clark, D., Xu, J., Świgoń, M., Watkinson, A., Jamali, H. R., & Herman, E. (2024). Purchase and publish: early career researchers and open access publishing costs. *Learned Publishing*, 37(4), e1617. <https://doi.org/10.1002/leap.1617>

- Nicholas, D., Rodríguez-Bravo, B., Watkinson, A., Boukacem-Zeghmouri, C., Herman, E., Xu, J., Abrizah, A., & Świgoń, M. (2017a). Early career researchers and their publishing and authorship practices. *Learned Publishing*, 30(3), 205-217. <https://doi.org/10.1002/leap.1102>
- Nicholas, D., Watkinson, A., Abrizah, A., Boukacem-Zeghmouri, C., Xu, J., Rodríguez-Bravo, B., Świgoń, M., & Herman, E. (2018). What publishers can take away from the latest early career researcher research. *Learned Publishing*, 31(3), 249-253. <https://doi.org/10.1002/leap.1165>
- Nicholas, D., Watkinson, A., Abrizah, A., Rodríguez-Bravo, B., Boukacem-Zeghmouri, C., Xu, J., Świgoń, M., & Herman, E. (2020a). Does the scholarly communication system satisfy the beliefs and aspirations of new researchers? summarizing the harbingers research. *Learned Publishing*, 33(2), 132-141. <https://doi.org/10.1002/leap.1284>
- Nicholas, D., Watkinson, A., Boukacem-Zeghmouri, C., Rodríguez-Bravo, B., Xu, J., Abrizah, A., Świgoń, M., & Herman, E. (2017b). Early career researchers: scholarly behaviour and the prospect of change. *Learned Publishing*, 30(2), 157-166. <https://doi.org/10.1002/leap.1098>
- Nicholas, D., Watkinson, A., Boukacem-Zeghmouri, C., Rodríguez-Bravo, B., Xu, J., Abrizah, A., Świgoń, M., Clark, D., & Herman, E. (2019b). So, are early career researchers the harbingers of change? *Learned Publishing*, 32(3), 237-247. <https://doi.org/10.1002/leap.1232>
- O'Hanlon, R., McSweeney, J., & Stabler, S. (2020). Publishing habits and perceptions of open access publishing and public access amongst clinical and research fellows. *Journal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108(1), 47-58. <https://doi.org/10.5195/jmla.2020.751>
- Page, M. J., McKenzie, J. E., Bossuyt, P. M., Boutron, I., Hoffmann, T. C., Mulrow, C. D., Shamseer, L., Tetzlaff, J. M., Akl, E. A., Brennan, S. E., Chou, R., Glanville, J., Grimshaw, J. M., Hrobjartsson, A., Lalu, M. M., Li, T., Loder, E. W., Mayo-Wilson, E., McDonald, S., McGuinness, L. A., Stewart, L. A., Thomas, J., Tricco, A. C., Welch, V. A., Whiting, P., & Moher, D. (2021). The PRISMA 2020 statement: an updated guideline for reporting systematic reviews. *BMJ*, 372, n71. <https://doi.org/10.1136/bmj.n71>
- Petticrew, M. & Roberts, H. (2006). *Systematic Reviews in the Social Sciences: A Practical Guide*.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Rowley, J., Johnson, F., Sbaffi, L., Frass, W., & Devine, E. (2017). Academics' behaviors and attitudes towards open access publishing in scholarly journal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8(5), 1201-1211. <https://doi.org/10.1002/asi.23710>

- Tenopir, C., Dalton, E., Fish, A., Christian, L., Jones, M., & Smith, M. (2016). What motivates authors of scholarly articles? the importance of journal attributes and potential audience on publication choice. *Publications*, 4(3), article 22.
<https://doi.org/10.3390/publications4030022>
- Togia, A. & Korobili, S. (2014). Attitudes towards open access: a meta-synthesis of the empirical literature. *Information Services and Use*, 34(3-4), 221-231.
<https://doi.org/10.3233/ISU-140742>
- Toribio-Flórez, D., Anneser, L., deOliveira-Lopes, F. N., Pallandt, M., Tunn, I., Windel, H., & Max Planck PhDnet Open Science Group (2021). Where do early career researchers stand on open science practices? a survey within the Max Planck Society. *Frontiers in Research Metrics and Analytics*, 5, 586992. <https://doi.org/10.3389/frma.2020.586992>
- Tzarnas, S. & Tzarnas, C. D. (2015). Publish or perish, and pay-the new paradigm of open-access journals. *Journal of Surgical Education*, 72(2), 283-285.
<https://doi.org/10.1016/j.jsurg.2014.09.006>
- Xu, J., Chen, D., Chen, H., Zeng, Y., Nicholas, D., & Wang, Z. (2020). How are the new wave of Chinese researchers shaping up in scholarly communication terms? *Malaysian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3), 49-70. <https://doi.org/10.22452/mjlis.vol25no3.4>
- Xu, J., Nicholas, D., Zeng, Y., Su, J., & Watkinson, A. (2018). Chinese early-career researchers' scholarly communication attitudes and behaviours: changes observed in year two of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Scholarly Publishing*, 49(3), 320-344.
<https://doi.org/10.3138/jsp.49.3.03>
- Zuiderwijk, A., Shinde, R., & Jeng, W. (2020). What drives and inhibits researchers to share and use open research data?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open research data adoption. *PLoS One*, 15(9), e0239283.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3928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Han, Hye Young & Shim, Wonsik (2025).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open access journal publishing among early-career researchers in South Korea's health and medical fiel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9(4), 55-74.
<https://doi.org/10.4275/KSLIS.2025.59.4.055>

- Kim, Soo Young, Park, Ji Eun, Seo, Hyun Joo, Seo, Hye Sun, Son, Hee Jung, Shin, Chae Min, Lee, Yoon Jae, Jang, Bo Hyung, & Huh, Dae Seok (2011). NECA's Guidance for Undertaking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for Intervention. Seoul: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 Park, Hyunji & Park, Juhyeon (2023). A systematic review on the domestic research of library anxie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4(3), 271-293.
<https://doi.org/10.16981/kliss.54.3.202309.271>

